

진청294-314

無氏名

294.

나의 님 向흔 뜻이 주근 後면 엇더 홀지
桑田이 變혀 碧海는 되려니와
님 향흔 一片丹心이야 가실줄이이시라

나의 님 향한 뜻이 죽은 후면 어떻게 될지
뽕나무 발이 푸른 바다로 변할 수는 있겠지만
나의 님을 향한 일편단심은 변할 수 있겠는가

★桑田(상전)~뽕밭. 碧海(벽해)~푸른 바다. 가실 줄이 이시랴~변할 수가 있겠는가

295.

가마귀 눈비마자 희는 듯 검노메라

가마귀 눈비 맞으면 잠시 희어지는 듯이 보이나
이내 도로 검어지는구나

夜光明月이 밤인들 어두오라

하지만 밤에 비치는 달 어찌 밤이라고 빛나지
않겠느냐

님향흔 一片丹心이야 고칠줄이이시라

님을 향한 일편단심이야 변할 리가 있겠느냐

★가마귀~ 까마귀의 옛말. 검노메라~검구나. 夜光明月(야광명월)~여기선 밤에도 빛나는 구슬

296.

간밤의 우던 여흘 슬피우리 지내여다
이제야 생각하니 님이 우리보내도다
저물어 거스리 흐르고저 나도 우리네리라

간밤에 울던 여울 슬피 울어 지내는구나
이제야 생각하니 님이 울어 보낸 것이라
달이 저물어 거슬러 흐르고 나도 울어내리라

★여흘~여울. 지내여다~지내다. 거스리~거슬러, 거스르게, 거꾸로

297.

늡고 病든 몸이 北向혀 우니노라
님 向흔 ㅁ음을 뉘아니 두리마는
돌볼고 밤긴적이면 나뿐인가 흐노라

늡고 병든 몸으로 북쪽을 향하여 운다
님 향한 이 마음을 누가 아니 두겠냐만은
달 밝고 밤이 길 때면 나뿐인가 하노라

右戀君

298.

님이 헤오시매 나는 전혀 미뎃드니
날 스랑하던 情을 뉘순디 옮기신고

님이 헤아려 주심을 나는 크게 믿었더니
이제와 날 사랑하던 정을 누구의 손에다 옮기
셨는지요

처음에 뵈시던거시면 이대도록 설오라

처음부터 이몸을 미워하시던 것이면 이다지도
서러울까

★헤오시ㅁ | ~헤아려 주시매. 뵈시던~미워하시던 ‘무이다,뒤편’는 미워하다의 옛말

299.

어제 감던 머리현마 오늘 다 쉼소나
鏡裏衰容이 이어인 늘그니오
님게서 ㄴ가혀서든 내기로라혀리라

어제 감던 머리 설마 오늘 다 백발이 되겠느냐
거울 속에 비친 약한 내 모습이 늙기도 하였구나
님게서 누군가 하시거든 내것이라 하리라

★鏡裏衰容(경리 쇠용)~거울속에 비친 약해진 내모습

300.

이리헤고 저리헤니 속절 업슨 험만만회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니 속절없는 생각만
많아

業구즌 人生이 살고 저 사란논가
至今히 사라잇기는 님을 보려 흠이라

팔자 사나운 인생이 살고 싶어 살았는가
지금 살아 있는 것은 님을 보기 위해서이다

右謹謫

301.

靑山아 웃지마라 白雲아 譏弄마라
白髮紅塵에 내 즐겨 돈니더냐
聖恩이 至重하시니 갑고 가려호노라

청산아 웃지마라 흰구름아 희롱하지 말아라
어찌 백발홍진을 내가 좋아할 리 있겠느냐
임금의 은혜가 귀중하니 갑고 갈가 하노라

★白髮紅塵(백발홍진)~흰머리와 세속의 티끌

302.

故園花竹들아 우리를 웃지마라
林泉舊約이야 니즌 적이 없건마는
聖恩이 至重하시니 갑고 가려호노라

옛동산에 피어난 꽃들과 대나무들아 우리를 보고
웃지마라
숲속에 샘물 솟아나는 임천으로 돌아가리란 약속
잇은 적이 없건마는
임금의 은혜가 깊으니 갑고 갈가 하노라

右報効

303.

江湖에 봄이 드니 이 몸이 일이하다
나는 그물집고 아히는 밧출가니
뒷 뵈 해엄기는 藥을 언제 키랴 호느니

강호에 봄이 찾아오니 이 몸이 일이 많다
나는 그물 집고 아이는 밧을 가니
뒷 산에 해 넘어가는데 약은 언제 캐려 하는가

★일이하다~일이 많다. 갑고~갑다.

304.

冊답고 窓을 여니 江湖에 빙 썩잇다
往來白鷗는 무슨뜻 머짓는고
앗구려 功名도 말고 너를 조차 놀리라

책 덮고 창을 열어보니 강호에 배 떠있다
이리저리로 나는 갈매기야 너는 무슨 생각으로
그리 한가롭게 날고 있느냐
이후로는 공명심을 버리고 너를 따라서 살리라

★往來白鷗(왕래백구)~이리저리 나는 갈매기

305.

池塘에 비 뿌리고 楊柳에 너끼
인제 沙工은 어딤 가고 빈배만 밧엿는고
夕陽에 짝일흔 골머기는 오락가락호노매

연못에 비 뿌리고 버들은 물안개가 서렸는데
벧사공은 어디가고 빈배만 매여있는가
해질 무렵 무심한 갈매기는 오락가락 하는구나

★池塘(지당)~연못. 楊柳(양류)~버들나무

306.

젓소리반겨듯고 竹窓을 밧비여니
細雨長堤에 쇠등에 아히로다
아히야 江湖에 봄들거다 낙대 推尋하여라

피리소리가 들리기에 반가워 대로 만든 창문을
빨리 열고 바라보니
가랑비 내리는 긴 독에서 소등타고 오는 목동
이로다
아이야. 강호에 봄이 들었으니 님시대 드리워라

★젓소리~ 피리소리. 細雨長堤(세우장제)~가랑비가 내리는 긴 독

307.

아히야그물내어 漁缸에 시러노코
달권술막걸리 酒樽에 다마두고
어즈버비아직 노치마라 돌기드려가리라

아이야. 그물내어 고깃배에 실어 놓고
덜고인 술을 막 걸러서 술통에 담아두고
아! 배 띄우지 말아라. 달 기다렸다가 나가리라

★漁缸(어강)~고깃배. 酒樽(주준)~술통

308.

秋江에 밤이 드니 물결이 찬노미라
낙시드리치니 고기아니 무노미라
無心흔 돌빛만 싯고 빈비저어오노라

가을강에 밤이 깊어 물결이 차갑구나
낙시대를 던져 놓아도 고기가 물지 않는구나
무심한 달빛만 싯고 빈 배 저어오노라

309.

우논 거슨 버국이까 푸른 거슨 버들쭉가
漁村 두세집이 냇속에 날락들락
夕陽에 款乃聲듯거든 더욱 無心하여라

우는 것이 빠꾸기요 푸른 것이 버들 숲이로다
어촌 두세집이 냇가 속에 날락들락
석양에 정성스러운 네 소리 들으니 더욱 무심하다

右江湖

310.

功名富貴과란 世上사름 맡겨두고
말업슨 江山에 일업이 누어시니
봄비에 절로 난 山菜 区分인가 호노라

공명부귀 일랑 세상사람에게 맡겨두고
말없는 강산에 일없이 누워있으니
봄비 맞아 저절로 난 산나물 그 뿐인가 하노라

★과란~..일랑.

311.

말업은 靑山이 態업슨 流水로다
王喬赤松外에 날알니 업것마논
어디서 망녕엿거든 오라 말라호느니

말 없는 청산이요, 모양새 없는 흐르는 물이로다
높으신 왕이 붉은 소나무 밖에 있는 나를 알리
없건 마는
어디서 망령이 들었는가 오라말라 하는가.

312.

清涼山六 지 峰을 아느니 나와 白鷗白鷗야
현스호라 못미들슨 桃花로다
桃花야 썩 | 내지 마라 漁舟子 알가 호노라

청량산 육육봉을 아는 이는 나와 너 백구 뿐이
로다
누가 알고 야단스럽게 떠들리 있겠느냐. 믿지
못할 것은 복숭아 꽃이로다
도화야. 떨어지지 말아라. 어부가 알겠구나

★현스호라~야단스럽게 떠들 리가 있겠느냐. 썩이지 마라~떨어지지 말어라

右山林

313.

時節이 太平토다 이몸이 閑暇커니
竹林푸른 곳에 午鷄聲아니런들
기피든 一場華胥夢을 어니벗이 씨오리

세상이 참으로 태평하여 이몸이 한가하니
대나무 숲 푸른 곳에 낮닭의 소리가 아니었다면
깊이든 아름답고 달콤한 한 낮의 꿈을 누가 깨
웠으리요

★午鷄聲~낮닭의 소리. 一場華胥夢(일장화서몽)~한낮의 아름답고 달콤한 꿈

314.

아히는 藥키라 가고 竹亭은 뷔엿느디
흐터진 바둑을 뉘주어 다물소니
醉호고 松下에 저서니 節가느줄 몰래라

아이는 약캐러 가고 죽정은 비었는데
흩어진 바둑알을 누가 주워 담을 소냐
취하고 소나무 아래 누워 있느니 세월 가는 줄
모르겠구나